

목양칼럼

조국을 위해 우는 교회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44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총은
 44년의 천배, 만 배의 시간이 주어져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눈물로 교회를 섬겨 오신 선진(先進)들의 수고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로목사님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뜻 깊은 날에 우리의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화합의 장(場)이 되어야 할 올림픽이 시작부터 그러하더니
 마지막까지 점점 더 국론(國論)이 분열되는 양상(樣相)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일제의 강점기 아래 신음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분연(奮然)히 일어나 3.1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6.25 남침으로 우리 조국이 공산화가 되어가려 할 때
 부산 초량교회에 모인 교역자와 성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共産化)에서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구국(救國)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의 주제로 진행되는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99주년 삼일절도 이 주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던 해인 1974년도를 비롯해 몇 차례 대한민국을 사랑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장례식도 이 주간에 있습니다.
 44세의 퀸즈장로교회가 이 주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自明)합니다.
 표류(漂流)하는 조국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퀸즈장로교회여!
조국을 위해 올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음/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한국어교부 (646)789-1118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직인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이선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터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2월 25일
 제 44-8호

주일예배 (1,3부)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37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차상남 장로 3부 / 함용식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학개 2:1-9	사회자
찬양 CHOIR	주의 축복 내려주소서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부/ 오재혁 3부/ 조은빛,김혜진,오재혁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210 / 1,2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후 2018년 2월 25일

주일예배 (2,4부)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주일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최원일 장로 4부 / 남형욱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2부/ 조은빛,김혜진,오재혁 4부/ 김유진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학개 2:1-9	사회자
찬양 CHOIR	주의 축복 내려주소서 주와 함께 가리라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	김성국 목사
* 찬송 HYMN	에벤에셀 하나님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예배

오후 4:00 (2/25/18)	사회: 김성국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505	다같이
기도	이규성 장로
성경봉독 로마서 1:13-17	사회자
찬양	찬양대
말씀	김성국 목사
복음을 위한 교회	
명예권사 추대패 수여	김성국 목사
장학금 수여	김성국 목사
특송	헤리티지 콰이어
광고	사회자
찬송 주님께서 세운 교회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수요 기도 예배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오후 8:00 (2/28/18)	사회: 오인수 목사
찬양과 경배	특별찬양 위원회
성경봉독	사회자
	시편 22:3
말씀	오인수 목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새가족 환영회

제 6과 예수그리스도의교회

교회소식

2월 헌신의 달 -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2/19(월)-3/31(토) 사순절 서원 새벽 기도회 2/25(주)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주일 / 장학금 수여식
2/28(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3/4(주) 선교회 월례회 / 제 56기 전도폭발훈련 오리엔테이션
3/7(수) 아굴라/브리스가 헌신예배, 지도원 성경공부 3/14(수) 베드로/마르다 헌신예배

알림

-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예배가 오늘 오후 4:00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 제 31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안내 * 주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 기간: 3/31(토)까지
-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 안내 * 2부 예배 후 오전 11:45 - 210호(학습), 213호(입교/세례), * 고등부 세례 학습: 부서에서 진행 * 유아 세례는 1회로 3/4(주) 오전 11:30(B06)
- 단기,중기 및 실버선교 오리엔테이션 안내 1) 일시: 3/3(토) 오후 7:00 2) 장소: 양순관 3) 예정지: 카작스탄, 캄보디아, 케냐, 온두라스, 중국, 엘살바도르, 아리조나, 할렘 4) 문의: 정길표장로, 이정훈집사
- 무료 B형 간염검사(KCS 주관) 및 무료 및 저비용 건강보험 신청 상담 (GetCovered NYC 주관)이 3/3(토) 오전 7:00-8:00에 지하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제 56기 전도폭발 훈련 1) 등록 마감: 2/25(주) 2) 오리엔테이션: 3/4(주) 3) 문의: 오인수 목사, 최원일 장로
- 퀵스성인대학 안내 1) 개강: 3/6(화) 오전 10:30 2) 문의: 이양미 전도사
- 제5기 영성 훈련 안내 1) 등록마감: 2/25(주) 2) 개강: 3/8(목) 3) 문의: 윤원상 전도사, 홍승룡 장로
- 열린유아원 봄학기 개강 안내 1) 대상: 만 18개월-36개월(2/28 기준) 2)개강: 3/8(목) 오전 10:00 3) 등록: 본교회 교인 자녀- 3월 첫주까지, 외부 - 3/6(화) 오전 10시, 선착순 30명 4) 수업: 매주 화,목 오전10:00-12:00 5) 문의: 이명옥전도사
- 태아교실 안내 1) 대상: 모든 임신 가정 2) 장소: 영아부실 3) 등록비: \$20.00 4) 일시: 3/11, 18(주) 오후 3:30-5:30, 수료 및 만찬 3/22(목) 오후 6:00 5) 문의: 윤지영 권사
- 새성전 건축 및 선교를 위한 세무 봉사 1) 기간: 2/18(주)-4/8(주) 2) 매주일 오후 12:00-2:00 3) 장소: 205호 4) 문의: 정재운 집사. 접수 2주 후 세금보고 완성. 수익금 전액 새성전 건축 기금으로 봉헌
- 3/3(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청년 대학부, 청년 선교부 (다음주: 중국어부)
- 가족기념 장학기금 고등부 교사, 김정운 집사

새가족

신순희 (한나 1F1) 박형민 (청년선교 1Y2)

교우소식

병 환 김동은 집사 (한선일 집사 4F5)께서 위암 수술 후 뉴욕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식사제공 오늘은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주일로 낮에는 미역국, 오후 예배 후에는 잔치국수를 제공합니다.

금식기도자

월 / 최애령 김영화 황보명옥
수 / 손요한 권향련 송사라
금 / 김인환 김경구 임광순

주 / 김려선 최애령 황보명옥 황혜옥
화 / 손요한 황설매 김해련
목 / 편춘자 김경구 임광순
토 / 염정자 최전상 이정숙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306	러시아어 예배	17	영어부	24	중등부	47
2부 예배	381	청년 선교부	84	유아부	29	고등부	52
3부 예배	299	QBC	257	유치부	34	청년 대학부	41
4부 예배	138	새벽 예배	2634	중국어 교육부	24	교회 학교 예배	404
영어 예배	152	수요 기도 예배	241	유년부	78	주일 낮 장년 예배	1678
중국어 예배	301	새가족 환영회	14	초등부	75	주일 낮 총계	2082

2월 봉사의원(3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김원도 장로(정길표 장로)

헌신기도	채영주 장로	황인섭 장로	황주현 장로	정길표 장로
책임권사	박대회 권사 (계연란 권사)	최정우 권사 (정혜자 권사)	이지희 권사 (소은자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다비다, 갈렙(마르다, 베드로) 주일식사: 청장년부(다음주: 마리아)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두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렙(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30) 소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든지, 참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받아 누리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월- 사도신경/ 찬송가 542장 /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5장 13-27절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축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투옥까지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런 이유로 디모데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그때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대상들을 만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증인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어야 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찬송가 518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6장 1-11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 모세, 사개오 등등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간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후 우리의 어떤 점들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바로 그 점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찬송가 544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6장 12절-23절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바울의 생애를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흔들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14절)는 표현을 통해 바울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찌르며 아프게 다가가고 계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수고하는 목자와 같이, 한 드라마를 찾기 위해 불을 켜고 집을 청소하며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열심으로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내 이웃은 내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은 우리가 모든 열심과 수고를 기울여서 찾아야 하는 사

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524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6장 24-32절

전도를 해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딱 세 가지입니다.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하기도 하고, 기독교는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믿게 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지만 저들에게는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의 반응이라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고전 1:18). 지식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학식은 오히려 인생을 망칠 뿐입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찬송가 338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7장 1-12절

하나님께서서는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로마행은 향해까지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자신이 원하는 신분과 모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종’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명자의 앞에 있는 어려움과 장벽은 결국은 그를 더욱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후 1:8-9).

합심 기도/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337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7장 13-26절

순풍이 변하여 갑자기 폭풍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헤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 해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을 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역할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만나 표류하고 있는 세상에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변은 늘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